

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9.5)

1. 삼성전자의 불화수소 국산화 관련

□ [일본 언론 동향]¹⁾

- 일본 언론들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한국산 불화수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보도하였음.
- 다만 (삼성전자가 생산라인에)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이라고 보는 언론(日本經濟新聞)도 있는가 하면, 한국 정부와 기업이 (반도체 소재)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를 실시, ‘탈일본화’가 실현되면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견해(朝日)도 존재함.
- o 한편 아사히 보도에 따르면, 한국 반도체 업계의 일본산 불화수소 의존도는 40%를 초과하며,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는 약 90%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음.

2. 일본산 자동차 불매 운동 관련

□ [동향]

-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9월 4일 지난달 신규등록한 일본제 승용차는 1,398대로 1년 전보다 57% 가까이 감소했다고 발표함.²⁾
- o 8월에 신규 등록된 일본차 수는 1,398대로 작년 동월의 3,247대에서 대폭 하락한 수치임.

□ [일본 언론 평가]

-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반발로 일본제품에 대한 (한국인들의) 불매운동이 자동차 판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함.³⁾

1) 「サムスン、韓国製フッ化水素を試験投入、日本が輸出管理強化、代替狙う。」『日本經濟新聞』(2019. 9. 5).
및 「サムスン、国産品使用始める 日本への輸出規制受け フッ化水素」『朝日新聞』(2019. 9. 5).

2) 「“한일 갈등 악화에 일본 외면”...日 관광·자동차 직격탄」『KBS』(2019. 9. 5).

-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“한일관계가 개선되어도 일본차에 대한 비호감 현상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일본차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워질 것” 이라고 전망함(産経新聞).

3) 「韓国、日本車登録5.7%減、8月、不買運動広がる。」『日本経済新聞』(2019. 9. 5), 「韓国での日本車販売台数、大幅減」『朝日新聞』(2019. 9. 5), 「韓国新車販売台数：8月新車販売 日本車、韓国で5.7%減 不買運動が影響」『毎日新聞』(2019. 9. 5), 「韓国、日本車販売5.7%減 8月 不買運動が影響」『産経新聞』(2019. 9. 5).